

'스포츠 7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 전남게이트볼 심판원 자격자 정기연수

전남도협회, 이론·실기 각 지역별 방문 서비스 교육 6일간 대장정 돌입



광양시와 여수시 심판원 100여 명이 심판원 교육을 마치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기념촬영을 했다.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장귀남)는 지난 19일부터 광양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9년도 심판원 정기연수회를 실시했다. 전남도협회는 전남 지역에 심판원 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해 매년 실시해왔던 연수교육을 7개 시·군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영암군, 나주시, 해남군)별로 구분 19일부터 6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므로 이번 19일 연수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군 심판원은 개인별 시간이나 날짜를 조정, 어느 지역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게 된 셈이다.

전남도협회 장 회장은 교육에 참여한 심판원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게이트볼의 발전과 경기를 이끌어 갈 최고의 꽃인 심판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공명정대하며 명확하고 현명한 판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판원 교육은 전남도협회 전문위원 중에서 경기규칙, 박삼택(심판위원장) 제스처, 최종덕(경기위원장) 기록표작성요령, 이정영(경기준비위원장) 경기준비(세레모니) 유정인(경기준비위원장)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효과를 한층 높였다.

한편 전남도협회 김일호(사무국장)은 "이번 6일간 이어지는 연수교육에 미 이수자는 심판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1년간 모든 경기에 심판원으로 참석할 수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 해부터는 3급 신입 심판원은 지역 경기에서 3회 이상 심판 경력을 득한 후 전남도 경기 심판원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전남드래곤즈 플레티넘멤버십 데이 개최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정명)가 최근 열린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플레티넘 멤버십 데이를 진행했다.

전남드래곤즈 멤버십 제도는 드래곤즈 팬들이 경기를 보다 재미있게 즐기도록 돕고 영원한 팬으로 연간 회비와 혜택에 따라 플레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유료 멤버와 베이직인 온라인 무료 멤버로 나누어진다.

이날 행사는 플레티넘 회원을 위한 행사로 플레티넘 멤버 약 40여명이 참석해 전남드래곤즈의 비전을 공유했다.

전남드래곤즈 조정명 사장은 구단의 비전인 "팬과 함께 행복한 명문구단" 실현을 위해 프론트, 코칭스텝, 프로선수 등 전 구성원이 ①스스로 힘으로 지속 발전하는 자립 ②팬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열정 ③한 가족, 한 팀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아 재창단의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인 플레티넘 멤버들께서 전남드래곤즈를 많이 사랑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플레티넘 멤버십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도 안양과의 홈경기를 끝까지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하였으며, 앞으로 전남드래곤즈 발전을 위해 광고 후원뿐만 아니라 선수단 초청 민찬, 단체 관람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강정호, 개막전 3루수 선발 확정

단장 "파워 위협적...최고의 선택이라 믿어"

화려한 재기를 꿈꾸는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주전 3루수 경쟁에서 승리해 개막전 선발 출전을 확정했다.

닐 헨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19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주전 3루수로 강정호 유격수로 에릭 곤잘레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올린 모란, 곤잘레스는 신인 케빈 뉴먼과의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29일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한다.

헨팅턴 단장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4명의 선수가 모두 주전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현 시점에서 강정호와 곤잘레스가 수비적인 면에서 최고의 조합이라고 느꼈다. 이것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클리프 허들 피츠버그 감독도 "수비 범위나 운동 능력 등을 고

려했을 때 강정호, 곤잘레스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강정호와 3루수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모란은 좁은 수비 범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피츠버그는 내야 수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지난 시즌을 치렀다.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저질러 두 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스포링캠프 초반만 해도 백업 자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범경기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했다.

강정호는 11경기에서 타율이 0.178(28타수 5안타)에 불과하지만 안타 5개를 모두 홈런으로 장식하며 장타력을 뽐냈다.

MLB닷컴은 "강정호가 지난 두 시즌의 대부분을 날렸지만 스포링캠프에서 훌륭한 컨디션을 자랑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가 3루에서 평균 이상의 수비를 보여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헨팅턴 단장은 "강정호의 파워는 확실히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헨팅턴 단장은 "이번 결정이 정규리그 162경기 내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모란과 뉴먼도 팀 내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을 다독였다.

뉴시스

## 커쇼, 9년 연속 개막전

선발 등판 최종 무산

왼쪽 어깨 염증에 시즌 준비 늦어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31)의 9년 연속 개막전 선발 등판이 무산됐다.

19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과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커쇼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기 힘들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커쇼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다저스의 정규리그 개막전 선발로 마운트에 올랐다. 올 시즌에도 개막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았지만, 왼쪽 어깨 염증에 발목이 잡혔다. 커쇼는 스포링캠프가 시작되고 약 3주 동안 투구를 하지 못했다.

어깨 통증을 털어낸 커쇼는 다시 시즌 준비에 나섰다. 12일과 15일, 18일에 불펜 투구를 했다. 12일과 15일 불펜 투구 때에는 패스트볼만 던졌고, 전날 불펜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구종을 시험했다.

커쇼는 21일에는 타자를 타석에 세워두고 투구하는 라이브 피칭을 할 예정이다. 이후 계획은 미정이다. 개막전까지 정상적인 몸 상태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정현, 마이애미 오픈도 불참 "허리 부상 원인"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3·한국체대·92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이애미 오픈에도 불참한다.

정현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작년부터 계속된 허리 부상으로 이번 마이애미 오픈 대회도 취소하게 됐습니다"며 "이 또한 운동 선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고 밝혔다.

정현은 허리 통증으로 지난해 중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ABN 암로 월드 토너먼트 이후 약 한 달 동안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마이애미 오픈을 복귀 무대로 삼았던 정현은 이날 발표된 대회 대진표에도 이름을 올렸다. 1회전에서 데니얼 타로(26·일본·72위)와 맞붙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계속되면서 출전이 불발됐다. 정현은 이번 대회 기권으로 지난해 이 대회 8강 진출



로 얻은 랭킹 포인트 180점을 잃게 됐다. 4월초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100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정현은 "다음에 코트에 돌아올 땐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올해 마이애미 오픈 1번 시드는 노박 조코비치(32·세르비아·1위)가, 2번 시드는 알렉산드르 즈베레프(22·독일·3위)가 받았다. 3, 4번 시드에는 도미니크 팀(26·오스트리아·4위), 로저 페더러(38·스위스·5위)가 배정됐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